

여수 섬지역 보육시설 추진 논란

금오도·안도·화태도 등 대상 아동 13명뿐... “예산낭비” 여론

통학선 운행 안전 문제도 제기

여수시가 대상 아동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도서지역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남면 금오도에 1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지회관 1층을 리모델링해 인근 도서지역 영·유아 아동들을 볼볼 수 있는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도서지역 보

육시설 확충을 위한 여성가족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대상인 남면 금오도와 안도, 화태도, 연도지역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대상 희망 아동이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보육시설 리모델링 외에도 통학선과 통학차량, 보육교사 확보 등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자가 불가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오는 2010년 이후에는 인구 감소로 남면 관내 4개 도서 가운데 최소 2개 섬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대상 아동을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인근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7세 미만 어린이들을 통학선을 이용해 이동시킨다는 계획은 풍랑주의로 밤길에 따른 운행 제한이 수시로 발생하고 안전상 문제까지 겹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도서지역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시민 도심 꽃길 조성 앞장

여수시민들이 시가지 꽃밭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꽃을 사랑하는 가족지원봉사단’ 회원들은

지난 13일 여문공원 인근 가로수 회단에 메리골드 및 셀비어 등 800여 송이를 심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20억원 들인 대룡정수장

제기능 못해 혈세만 낭비”

순천시의회 김기태 의원 주장

순천시 대룡정수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김기태 의원은 지난 12일 “순천시가 이사천 취수장 복류수(지표면 아래 물)를 끌어다 대룡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려고 설비를 갖쳤으나 공법상 하자가 있어 3년 4개월 동안 복류수를 끌어오지 못해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류수를 끌어오지 못하는 것은 당시 설계부터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20억 원을 들여 복류수 정수 설비를 갖췄으나 공법상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관리자들에 대한 문책 등 전반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당초 대룡정수장에서 하루 10만t 이상을 정수하려 했으나 복류수를 끌어오지 못해 정수량이 하루 9만t에 불과한 실정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사 화합 한마당

연리지 축제 성료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사와 외주사, 시민 등이 참여하는 연리지(連理枝) 축제가 13일 제철소 내에서 열렸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연리지 축제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맷돌 돌리기, 떡매치기, 투호놀이, 가족 줄넘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또 사진전과 공연, 팔씨름 대회 및 장기자랑, 레이저쇼와 악스, 클론, 박미경 등 초청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사진)

특히 광양제철소 조업 20주년

을 기념해 광양시와 광양제철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담은 영상물이 상영됐으며 이성웅 광양시장과 허남석 광양제철소장, 송병원 외주파트너사 대표, 강동수 광양제철소 협의회 대표가 광양시·광양제철소의 동반성장을 염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광양제철소와 외주사, 지역민이 뿌리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몸체가 되는 연리지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 승화된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순천 AIG 콜센터

年 134억 경제효과

순천에 600석 규모의 대형 콜센터가 문을 열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간 134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AIG생명보험과 AIG손해보험(AHA)은 지난 12일 ‘AIG 순천콜센터’를 개설했다. AIG콜센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유치한 콜센터 중 최대 규모인 600석 규모로 순천지역 여성 6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해 연간 133억4천400만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AIG는 여성 상담원을 위해 콜센터 내에 침상이 마련된 휴게 공간과 야외 가든 등도 조성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영화배우 문근영 1천만원 기탁 등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성금 ‘밀물’



원을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1천만원 상당을 기부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

한편 기적의 도서관에는 김동희(선평정미소)씨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회에 걸쳐 1천400여 만원 상당의 도서를 전달했으며, 지난해 말 순천천리아온스클럽에서 7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금까지 각계에서 4천200만원 상당의 도서와 성금을 기탁했다.

문양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지난 2003년에 기적의 도서관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았다”며 “건립 자체가 의미있는 도서관이어서 매년 상징적으로 마음을 보내고 싶었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문양은 기적의 도서관에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00~1천만원씩 모두 2천500만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상하수도 정보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여수시, 희망 시민에 제공

여수시가 수돗물 공급 중단 등 상하수도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제공한다.

여수시는 수돗물 공급 중단과 상하수도 요금 고지, 수납, 체납 등 상하수도 정보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인터넷(www.yewater.or.kr)에 접속하거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90-2840, 2909, 2913)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달 16일 모든 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면서 수 시간 후에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 ‘지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여수=박규기자 ykpark@

마지막의 마법~

당겨는 “루스터팬즈”

루스터팬즈

1577-2787

연립배가 학기적으로 절감되는 날방

‘풀레도’ 텁적와인 절감되는 날방이 백화점입니다.

내리쬐는 온·하늘빛 모친

(주)대양상사

TEL 062)262-0101